<전 매체> 2022년 2월 28일(월) 14: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문의 : 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044-204-7420), 정강은 서기관(7421)

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급변으로 인한 중소기업계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논의 -

□ 2월 28일(월), 중기부 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예상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계획 논의

□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소기업 영향을 집중 분석하고, 중기부와 업계 및 유관기관* 간 방안을 공유, 공동 대응체계 마련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22.2.23)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첨단기술(하이테크)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의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각각 전체의 2.8%(10위), 0.3%(37위)

** `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장악 시, 서구권 수출통제 영향으로 대(對)러 수출 53.7% 감소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TF)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심각화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함께해, 기관 간 긴급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 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수출·진출기업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 상승,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범정부 티에프(TF)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정강은 서기관(☎ 044-204-74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